

김동명 시의 탈식민주의와 분열증적 사유의 의미

- 『三八線』, 『하늘』, 『眞珠灣』을 중심으로

국원호* · 최도식**

차 례

- | | |
|------------------------------------|----------------------------|
| 1. 서론 | 4. 민중의 예속 집단화와 피난민들의
탈출 |
| 2. 일본 제국주의 신화의 해체와 분
열증적 사유 | 5. 결론 |
| 3. 소련과 북한 공산당 정권의 통치
와 제국주의의 반복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동명의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와 분열증적 사유의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김동명은 식민 활동 내내 일제 식민주의와 해방 후 소비에트 전체주의 사회라는 억압적 현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적 현실의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자아와 타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엄격히 구분된 제국주의의 위계적 질서와 경계를 해

* 제1저자, 강원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체하고자 하는 시 정신을 갖게 하였다. 특히 김동명은 해방 직후 간행된 『三八線』, 『하늘』, 『眞珠灣』과 같은 시집에서 탈식민화된 현실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독립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치열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파시즘적 제국주의의 신화를 해체하고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일제에 의해 수탈과 침략을 당한 소수 민족들과의 연대를 주창하는 분열증적 사유와 욕망을 시화(詩化)했다.

해방 후 김동명은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염원했지만, 오히려 북한에서 소비에트와 공산 정권의 만행과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목격한다. 그가 본 북한의 정치 현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일제시대와 같은 신식민주의적 통치, 전체주의적 통치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소비에트와 김일성 정권의 전체주의로 인해 인권이 말살되고 제국주의적 수탈로 얼룩진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시로 풍자하고 조롱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김동명에게 '3·8선'은 남과 북이라는 지리를 막는 경계뿐만 아니라 이념과 이동, 신념 등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적 한계선이 되었다. 김동명은 이 3·8선을 민중들의 의식화된 투쟁을 통해 해체하고자 했으나, 해방 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치하의 민중들은 봉건적인 낡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적 권력에 의해 종속된 예속 집단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해방 후 구획된 3·8선이라는 제국주의적 경계는 김동명이 북한에서 문학을 통해 펼치고자 했던 민족 해방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한계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동명, 분열증, 탈식민주의, 전체주의, 탈출

1. 서론

『芭蕉』와 『내 마음은』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초허(超虛) 김동명(1900-1968)은 1923년 『개벽』(통권 40호)에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을 발표함으로써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했다.¹⁾ 그는 주로 ‘전원시인, 목가풍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²⁾ 하지만 그는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南國을 향한 불타는 鄉愁”(『芭蕉』)라며 조국 상실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노래했던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작품 활동을 한 시기는 대부분 일제 식민치하였으며, 식민지 피지배 이주민으로 북한 지역(함흥, 서호, 강서, 안주 등)을 떠돌면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의 중심과 주변부가 파괴되는 광경을 목도(目睹)한 엄혹한 시대였다. 그리고 그는 해방 직후 3·8선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6·25 전쟁 시기에는 전쟁의 참화로 우리나라 로컬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파괴되어 피난지가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시로 형상화했다. 이처럼 김동명의 삶은 제국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오고 가는 유목민적 삶이었다. 이렇듯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의 지리적 이동과 유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산포(Dissemi-Nation)’³⁾는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기나 식민지의 확장이 일어났던 제국주의적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겐 일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

1) 김동명은 시집으로 『나의 거문고』(1930), 『芭蕉』(1938), 『三八線』(1947), 『하늘』(1948), 『珍珠灣』(1954), 『目擊者』(1957)와 수필집 『世代的 挿話』(1960), 『모래위에 쓴 落書』(1965), 그리고 정치 평론집 『敵과 同志』(1955), 『歷史의 背後에서』(1958), 『나는 證言한다』(1965) 등의 글을 남겼다.

2) 김동명의 시를 ‘전원시인’이나 ‘목가 시인’으로 평가한 주요한 글들은 백철(『朝鮮新文學思潮史』, 백양당, 1949.), 조연현(『韓國現代文學史』, 성문각, 1980.) 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헌 정리는 장은영의 『金東鳴 詩에 나타난 場所의 詩的 形象化』(『語文研究』 39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와 『초허(超虛) 김동명 시에 나타난 장소의 형상화』(『김동명문학연구』5, 김동명학회, 2018.)를 참조.

3)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12, 305-307쪽.

나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김동명의 시세계에는 전원의 목가적 삶을 노래한 작품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⁴⁾ 그의 시에는 식민지 근대 주권 세계가 위계화한 자아와 타자, 안과 밖,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규정하는 일련의 이분법적 대립물에 의해 분할된 마니교적 세계의 경계와 적대를 허물고자 하는 탈식민주의적인 문학적 치열함⁵⁾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김동명의 시는 해방 후 월남하여 펴낸 시집 『三八線』(문류사, 1947.), 『하늘』(문류사, 1948.), 『眞珠灣』(이화대학교출판부, 1954.) 등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대개 식민 직후(colonial aftermath)의 특징은 이행과 전환의 시기로 민족의 새로운 자기 창안에 대한 행복감과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는 양가적인 문화적 분위기를 드러낸다.⁶⁾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방 직후에 간행된 김동명의 시집 『三八線』, 『하늘』, 『眞珠灣』⁷⁾ 등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일제의 패망에 대한 환호와 일제 식민지 역사의 청산 의지가 담겨 있으며,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탈식민주의적 욕망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⁸⁾ 또한 그의 시에는 해방 이후 소련이 주둔한 북한

4) 김동명 시의 ‘민족시’적인 성격과 ‘저항의식’적 성격을 지적한 연구로는 임영환(『金東鳴의 民族詩的 성격』, 『金東鳴의 詩世界와 삶』, 한남대학교출판부, 1994)과 심은섭(『초허의 ‘소극적 저항의식’의 시세계 수용』, 『김동명연구』, 김동명학회, 2016., 『상실’과 ‘저항의식’, 김동명 시세계』, 『인문사회21』, 제10권 6호, 2019.)의 연구가 있다.

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1, 195쪽.

6) 릴라 간디,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7-18쪽.

7) 김동명의 시집 『三八線』, 『하늘』, 『眞珠灣』은 해방 직전과 해방 직후에 쓰여진 것들인데, 북한에서 단신으로 탈출한 후 곧이어 월남한 아내에게서 『三八線』, 『하늘』의 원고를 넘겨받아 출간하였고, 그 후 6·25 전쟁 중 피난 온 이웃 주민에게서 『眞珠灣』의 육필 원고를 넘겨받아 1954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집을 출간하였다.(김동명, 『暗黒에의 序說』, 金東鳴文集刊行會, 『모래 위에 쓴 落書』, 1965, 262-265쪽 참고.)

8) 김동명은 해방 직후 새 나라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절망에 대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눈을 지긋이 감고 追憶三昧에 잠겨 太平洋의 風雲 속

에서 민주주의적인 민족 국가가 수립되지 않고,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자행된 비민주적인 북한의 현실이 새로운 제국주의로 변질되리라는 예감에서 나온 불안과 공포도 담겨 있다. 하지만 김동명은 해방 직후의 엄혹한 북한 현실 속에서도 일제에 의한 탄압과 수탈의 역사를 공유한 식민지 소수 민족들과 연대하려는 욕망을 표출했으며, 북한에서 새롭게 주둔한 소비에트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적대와 욕망의 관계를 드러내는 실천적인 작업⁹⁾을 풍자적으로 시화(詩化)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김동명의 시적 상상력과 시적 실천의 작업을 ‘분열증적 사유’로 보고자 한다.¹⁰⁾ 여기에서 말하는 분열증적 사유는 사회장에 흐르는 무의식적 욕망의 투자들에 도달하여 그 장의 무의식적 욕망의 흐름들이 어디로 연결되려 하는지, 어디에서 절단되는지를 해부하고, 그 무의식의 흐름들이 반동적인지 혁명적인지 진단할 수 있는 작업의 실천이다.¹¹⁾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해방 직후 김동명 시에 나

을 넘나들며, 혹은 人生旅程의 그윽한 哀愁에 젖어 꿈 꾸는 듯한 기분이다가도, 문득 現實로의 窓門이 열릴 때, 눈 앞에 벌어지는 광경에는 또한 몹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씌어진 것이 바로 詩集 『三八線』에 거두어진 것들이었다.”(김동명, 위의 글, 204쪽.)

9) 릴라 간디, 이영욱 역, 앞의 책, 17쪽.

10)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신들의 정신분석을 ‘분열분석(分列分析, schizo-analysis)’이라고 부른다. 분열분석은 사회장에 흐르는 편집증과 분열증적 과정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여기에서 편집증자(paranoïaque)는 거대한 그램분자적 집합들, 통계적 구성체들 내지 군집들, 조직된 군중 현상을 다루며, 분열자(schizo)는 더 이상 통계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한에서 분자들의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다. 무의식은 이러한 흐름들의 연합과 단절로 이루어지고, 무의식의 모든 투자와 환상은 집단을 이루고 현실을 정립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김동명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의 ‘분열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분열증적인 사유’라는 개념을 전유하고자 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민음사, 2016, 468-471쪽.)

11)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욕망은 ‘흐름’이다. 욕망은 흐르고 흐르게 하고 흐르고 절단한다. 욕망은 욕망의 흐름과 파편화된 욕망의 흐름들에 대한 짝짓기를 끊임없이 실행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28-29쪽.)

타나는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과 북한에 뿌리내리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신식민적 현실이라는 사회장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시인의 치열한 정치의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¹²⁾ 김동명의 시를 탈식민주의와 분열증적 사유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은 그동안 그의 시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시인의 정치적 의식과 무의식을 규명하고, 특히 풍물시나 정치참여시의 한계로 평가받아왔던 그의 중·후기 시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김동명 시세계에 대한 조망의 지평을 확장하고, 동시에 해방 직후 한국 현대시사의 의미망을 넓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 일본 제국주의 신화의 해체와 분열증적 사유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의 계기는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식민지 역사의 청산과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업이 부여된다. 해방 이후 묶은 『三八線』과 『하늘』, 『眞珠灣』이라는 시집에서 김동명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의 신화를 청산하고 민족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치열한 시 정신을 보여준다.¹³⁾ 이 시집들을 살펴보면, 김동명이 식민지의

12) 장은영은 김동명 시에 나타난 장소의 형상화에 대해, ‘경험적 장소의 형상화’는 “새 국가를 위한 이념적 지향보다는 사회적 불안이 내재된 해방기의 삶을 표출”한다고 하였고,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시선으로서의 ‘비유적 장소와 경험적 장소’의 의미는 “태평양 전쟁과 같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을 비유를 통해 간접적 경험의 차원으로 형상화”하였으며, “한국 전쟁의 직접적 경험은 실존적 위기 인식 속에서 증언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전후 현실의 풍경들’의 형상화는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느끼는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장은영, 앞의 논문, 2011, 41-68쪽.)

13) 심은섭은 『眞珠灣』에 수록된 시들에서 “민족과 조국에 대한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또 전쟁과 독재에 대한 철저한 증악(憎惡)과 항거(抗拒)를, 그의 진정한 바람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은섭, 앞의 논문, 2019,

참혹한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눈을 뜬 계기가 1937년 중일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국민국가는 ‘국경’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공간을 근간으로 구축되었다. ‘국경’이라는 개념과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이라는 관념과 실천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민, 대중, 그리고 종족 개념과 함께 엮여 구성되었다.¹⁴⁾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영토적 통일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은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¹⁵⁾이 아니었다. 중일전쟁은 일제가 식민지를 확장하고 경제 공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東方의 鬱憤을 진인/ 조그마한 타이나마이트”와 같이 “노구교(蘆構橋)”(『一九三七年抄描 1-蘆構橋』) 사건을 조작한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제국은 전체주의를 넘어서 점차 ‘파시즘(fascism)’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전체주의와는 달리 ‘파시즘’은 ‘국의 침략’을 통해 전쟁에 사용되는 ‘국내 시장에서 특수한 보충 물자(Ersatz)의 특수한 생산’을 통해 자본을 증식하는 ‘전쟁 경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¹⁶⁾ 일본과 중국 간의 이 파시즘적인 전쟁은 만주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더 나아가 난징대학살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벌인 중일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테러리즘(Terrorism)’¹⁷⁾에 불과했다.

660쪽.)

1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앞의 책, 232쪽.

15) 로마 제국 전통 이래 국경에서는 ‘야만인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반란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력이 주어졌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앞의 책, 37쪽.)

16)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국내 시장을 억지로 없애는 것과 공리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전체주의의 극과 일치하지만 외적 부문에 대한 중시를 국외 자본에 호소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경제’를 통해, 즉 국외 침략과 국내 시장에서 특수한 보충 물자의 특수한 생산을 통해 자본의 자율적 형성을 가져오는 경제를 채택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886쪽.)

일본 제국주의의 탐욕은 중일전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용은 결국 패전으로 귀결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식민지 민족들이 해방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 직후 김동명은 진주만 습격 이후 일제가 패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화(詩化)하면서, 일본의 거짓된 제국주의적 신화를 해체하고자 했다.¹⁸⁾ 일제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와는 달리 천황(天皇)이라는 낡은 봉건제 양식과 근대 자본주의적인 양식이 결합해 특수한 체제의 형태로 우리나라를 식민화했다. 즉 일제는 조선이라는 옛 봉건제의 혈연과 결연을 거부하고, 일본 천황(天皇)과의 ‘새 결연을 강요하고, 신과 직접 혈연을 맺는’¹⁹⁾ 존재임을 믿도록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강요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화했다.²⁰⁾ 그래서 김동명은 일본 제국주의가 봉건제 군주처럼 “國民을 불러” 본적 없

- 17) ‘테러리즘’은, 첫째,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반란이나 봉기. 둘째,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부가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셋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교전 규칙들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투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 역, 『다중-『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44쪽.)
- 18) 김동명의 아들 김병우 교수는 김동명이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발발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의 패망을 예감했으며, 이러한 판단에 의해 『珍珠灣』 시작 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김병우, 『아버지 金東鳴에 관한 書翰』, 『金東鳴의 詩世界와 삶』, 한남대출판부, 1994, 211-212쪽.)
- 19) 들뢰즈와 가타리는 전제군주 국가를 ‘야만 전제군주 기계’라 부른다. 이는 라캉의 ‘상징계(Symbolic)’를 역사화, 정치화한 개념인데,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32-343쪽.) 중국의 천제(天帝)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천명(天命)이다. 하지만 일본의 천황(天皇)은 사제=수장의 연장으로 존재했으나, 천황의 정통성은 신(神)에 의해 부여된다.(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제국의 구조-중심, 주변, 아주변』, 도서출판 b, 2016, 291쪽.)
- 20) 1937년 10월부터 실시된 조선의 황국신민서사를 비롯해 일본의 황민화정책은 대만, 남양 군도,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황민화정책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명분을 내건 침략전쟁(聖戰)의 정당화이자 식민지 수탈의 당위성을 제공했다.(최주한, 『신체제기 이광수 황민화론의 세계기』, 『서강인문논총』 50,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332쪽.)

는 “帝王”(「東京」)인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탄생했다고 고발한다.²¹⁾ 그리고 동양에서 처음으로 제국이 된 이후에는 일본 스스로 “일즉이, 世紀의 念佛 大東亞共營勸을 高唱하든 正義의 나라”,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神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現代版 神話의 나라”, “일곱번 다시 살아 怨讐를 갚는다는 不死鳥의 녀을 가진 兵隊의 나라”(「輓歌」)라며 신화화된 선전과 더불어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식민지 국가로 확장해 간 일제를 비판한다. 그래서 한창 번성할 때 일본제국은 “東方 歷史의 花園에 한 떨기 벚꽃인양 화려”(「輓歌」)한 모습을 자랑했었지만, 일제의 제2차 대전에서의 패망은 일제의 화려한 신화가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김동명의 시에서 일제의 허황된 신화를 해체하는데 그가 주로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다룬 그의 시들은 그가 수필에서 밝혔듯 “눈을 지긋이 감고 追憶三昧에 잠겨 太平洋의 風雲 속을 넘나들”며, “혹은 人生旅程의 그윽한 哀愁에 젖어 꿈꾸는 듯한 기분”²²⁾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김동명 시에서 태평양 전쟁을 다룬 작품들은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이라는 양가성을 띤다.

東京/ 너는 국제 「캥」 團의 外廓陣地/ 또한 「白林」, 「로마」로 더부러
 歷史의 地下室/ 戰利品목록에 오른 「滿洲」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암호
 전보와 비밀 지령은 너머 심하지 않으나/ 드디어 蘆溝橋 陣頭의 一發이
 / 다음날 네 運命의 序曲이 될 줄이야……// 보라/ 蒼空 一萬 「메터」를
 뒤덮어 오는/ 白鳥 떼의 흰 날개/ 千 가락 萬 가락 휘뿌리는 金실 비/
 불꽃의 饗宴/ 아아, 七百萬 市民 諸君!/ 일즉이 어느 市民이 이렇듯 화
 려한 밤을 가져 보았다뇨.

- 「東京」 중에서

21) 이는 ‘천왕제 파시즘’이라 불리는데, 왕정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파시즘과 달리 왕정의 권위를 재환기시키기 때문이다.(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앞의 책, 330쪽.)

22) 김동명, 앞의 글, 204쪽.

김동명의 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진주만 기습도 중일전쟁처럼 국민 국가 간의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 「갱」 團의 外廓陣地”에서 벌인 ‘테러리즘’에 불과하다는 점이 폭로된다. 그것은 “戰利品목록에 오른 「滿洲」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진주만을 “암호 전보와 비밀 지령”으로 습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국가 간의 ‘정당한 전쟁’은 뚜렷한 공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은 “權域 三千里를 짓밟든 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이라는 공간적 한계가 없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한 폭력이었다. 그런데 이 시의 2연에서 “보라”라는 호격에서부터 시작해 폭발의 장면들이 이어지는 간결한 현재 시제의 묘사들과 감탄사는 내적 긴장을 나타내는 ‘언어의 강도(強度)적인 표현’²³⁾을 통해 시의 화자가 전쟁터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환각(幻覺)처럼 기술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 시의 화자는 내가 아니라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연합군의 전사와 같은 타자(他者)가 되어 전장의 실상을 직접 환각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김동명의 시적 화자들은 분열증자적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 시들에서 김동명의 시적 주체들은 김동명 자신이 아니라 일제를 괴멸시키는 연합군의 일원이 된 듯 하는 분열증적

23) 들뢰즈와 가타리는 소수 문학의 언어적 특징으로 강도(強度)적인 표현을 들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어떤 의미를 확정하는 동사나 전치사; 대명동사나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강세도들, 접속사, 감탄사, 부사, 고통을 포함하는 용어들”이 있다. 김동명의 시에서 나타나는 현재시제, 명령법, 감탄사 등은 분열증적 언어의 강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소수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4, 58-60쪽.)

24) 분열증자는 ‘나’를 ‘타자(他者)’로 느끼거나 환상하거나 망상하는 자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열증에서 내공(內鞏)들, 생성(生成)들, 이행(移行)들만을 체험하는 ‘감정(感情, emotion)’이 망상(妄想)과 환각(幻覺)에 비해 1차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수 상태에서의 거의 견딜 수 없는 한 점에서의, 내공량들에 분열증적 경험이 있다. 환각 현상(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과 망상 현상(나는……라고 생각한다)은 더 깊은 차원의 ‘나는 느낀다’를 전제하며, 이것은 환각들에 대상을 주고 생각의 망상에 내용을 준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의 주체가 들뢰즈적 의미에서 진정한 무의식의 주체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48-57쪽.)

인 ‘환상(幻想)²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명은 정당한 전쟁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없어야 하지만, 일제는 수많은 전쟁지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 폭력을 가하였고, 그들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분열증적인 환각(幻覺)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鏡臺 앞에 마조 앉어/ 丹粧도 옛 꿈이런가// 斷崖에 기어 올라/ 머리
 빛는 女人들// 솟으르쳐 몸을 날리니/ 紛紛한 落花로다// 『사이판』의 슬
 픔이야기는/ 水窟에 무르탄다

- 『사이판』에서

사이판 섬에서 일어난 소수민족 여성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다룬 이 시에서도 김동명은 마치 그들의 비극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듯이 묘사한다. 즉 사이판 여성들은 일제의 잔인한 만행을 피해 “斷崖에 기어 올라/ 머리 빛는 女人들”이 “솟으르쳐 몸을 날리니/ 紛紛한 落花로다”라는 표현은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소수 민족 여인들의 비참하면서도 고결한 죽음을 목격하는 듯 한 분열증적인 환각(幻覺)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동경까지 五五00기로” 떨어진 “과딸카날島”라는 제국 주변부의 로컬까지 침략한 일제의 군인들과 오키나와(沖繩)에서 “아직도 오히려 神風을 기두루며/ 슬픈 神話의 숲속을 헤매는 무리”(『沖繩』)들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amor patriae)²⁶⁾

25) 환각(幻覺, hallucination)은 정신의학에서 ‘허위 지각’으로 정의되고, ‘적절한 외부 자극 없이 생기는 지각’을 뜻한다. 환각은 대개 ‘정신병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목소리를 듣는 환청이나 시각적인 것, 신체적인 감각, 촉각, 후각 혹은 미각적인 것’들이 있다. 라깡은 정신병적인 환각을 폐제(廢除, foreclosure)의 작동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상징계에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 실재계에 나타난다”고 했다.(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004, 435쪽.) 그러나 들뢰즈는 ‘환각’을 자아가 용해되거나 사라지게 하는 현상이며, 자아가 가두고 있는 “무(無)우주적, 전(前)개체적, 비(非)인칭적 특이성들을 해방”시키는 분열증적 운동이라고 특징짓는다.(질 들뢰즈,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민음사, 2009, 350쪽.)

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용감한 신화적 군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증언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오히려 역으로 이들은 일본 군국주의가 주입한 “神風”과 같은 허황된 신화만 믿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제국주의의 용병에 불과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기습 침공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노구교 사건을 조작하며 침략을 자행했던 정당하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고, 역사상 “白林”이나 “로마”(「東京」)가 자행했던 고대 제국의 야만적인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다. 특히 이를 통해 일본은 로마 제국처럼 ‘공화정과 전제 지배의 통합’으로 인해 ‘철저한 민주주의’에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군사적인 정복’만이 아니라 ‘폴리스의 확장’이라는 형태로 구성된 제국이었음을 김동명의 시는 상기시킨다.²⁷⁾ 따라서 김동명에 의하면 일제의 제국주의 신화는 고대 제국의 부패한 역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동·키호테氏」의 꿈”(「미뜨웨이」)처럼 허황되게 진주만의 기습 공격으로 부정의(不正義)한 전쟁을 일으킨 일제에 맞서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등이 “赤十字의 붉은 標式”(「라바울」)을 들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연합군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음을 김동명은 선언한다. 연합군의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이 침략한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아득히 甘藍 물결 위에 뜬/ 한 포기 睡蓮花// 아름다운 꽃잎 속속드리
/ 東方 歷史의 새 아침이 깃드려……// 그대의 발길 휘감기는 것은 물결

26)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빠뜨리아(amor patriae)’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인민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기원은 ‘공화주의적 카리타스 또는 공감적인 동료애’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국가를 초월하는 인류애인 아모르 휴마니타티스(amor humanitatis)’로 변형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민족주의적 군국주의의 찬미는 애국적 정조(情操)라는 전통의 왜곡이며, 이는 20세기의 파시스트 체제에서 그 논리적 정점에 이른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 외 역, 앞의 책, 89쪽.)

27)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앞의 책, 186-189쪽 참고.

이나 또한 그리움이나/ 꿈은 征邪의 旗幅에 쌓여 珍珠인양 빛난다//
 <중략> 드디어 運命의 날은/ 一九四二년도 다 저므로 十二月 八日// 아
 하, 이 어쩐 爆音이노, 요란한 爆音 소리! 듣느냐, 저 壯快한 世紀의 「멜
 로디」를!// <중략> 그러나 「노크」도 없이 달려 든 無禮한 訪問이기에/
 연다라 용솟음치는 불 기둥에 영키는 憤怒는……// 黑煙을 뚫고 치솟는
 憤怒 속에 世紀의 光明이 번득거려/ 아아, 莊嚴한 歷史의 前夜! 颱風은
 드디어 터지도다!

- 「眞珠灣」 중에서

진주만이 있는 하와이는 19세기 말 미국에 편입되기 전 18세기 이래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에 의해 온갖 수탈과 침략을 받은 역사를 지닌 왕국이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영국의 식민지로 많은 수탈을 당하다 독립한 나라였다. 그렇기에 미국에 편입된 이후 진주만은 일본의 기습 공격 이전에는 “東方 歷史의 새 아침이 깃드려”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2년 일본의 진주만 습격은 “甘藍 물결 위에 뜬/ 한 포기 睡蓮花”와 같았던 진주만의 평화를 깨는 “요란한 爆音 소리”였다. 게다가 일본의 공격은 “「노크」도 없이 달려 든 無禮한 訪問”이기에 “黑煙을 뚫고 치솟는 憤怒”를 자아내게 하였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군주 국가들은 ‘전쟁’이라는 스펙터클한 공포를 조장해 신민(臣民)들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전제 군주 국가들의 폭력과 침탈이 반복되다 보면, 신민들의 복수가 감행된다. 전제 군주 국가들의 ‘폭력에 의해 잠복하게 된 것, 억압되고 물러나고 내부로 감금된 것’들이 “분노”라는 ‘감정(ressenti)’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²⁸⁾ 그래서 신민들의 오래된 ‘원한(怨

2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61-365쪽. 권력은 의식에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들 간의 ‘작용과 반작용’, ‘우월한 힘과 열등한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니체에 의하면 권력의지는 힘과 힘의 관계를 규정하고 힘의 성질을 생산하는 미분적 요소, 계보학적 요소이다. 그리고 권력 관계는 어떤 힘이 열등하거나 우월한 다른 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에서 규정된다. 그래서 권력의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표명된다. 영향받을 수 있는 능력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affectivité)’이나 ‘감성

恨)감정(ressentiment)’은 전제군주들의 잔혹한 통치 체제에 복수로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에서 김동명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은 하와이 원주민들과 미국인들 속에 내재된 식민지인들의 원한감정과도 같은 “憤怒”를 건드린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시적 주체는 연합군과 같은 타자가 된 것처럼 “아하, 이 어쩐 爆音이노, 요란한 爆音 소리! / 듣느냐, 저 壯快한 世紀의 『멜로디』를!”이라며 일제의 도발이 만들어낸 폭음 소리를 “壯快한 世紀의 『멜로디』”로 생생히 환청(幻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도발의 결과는 “黑煙을 뚫고 치솟는 憤怒” 속에 생겨나는 “世紀의 光明”이고, “莊嚴한 歷史의 前夜!”가 될 것임을 시적 주체는 예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동명은 제국주의적 침탈과 폭력은 식민지인들의 원한감정이 쌓이게 하여 언젠가는 소수 민족이었던 미국처럼 정의로운 독립전쟁을 통해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제국주의로부터 침탈을 당한 많은 소수 민족들과의 연대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화(詩化)한다.

살과 쇠가, 神話가 科學이/ 맞드리를 하든 곳// 풀잎을 씹으며 코피를 마시며 싸호다가 싸호다가/ 남방 永劫의 흠이된 『神兵』 怨恨의 敗戰地// 후방 陣地에의 『轉進』이 그대로/ 東京까지 五五00기로 大退却의 비릇이 된 다음 날 歷史의 古戰場// 두개골 細工品생산으로 東亞隨一の 候補地인/ 아아, 과딸카날島여// 우리도 이제 南方航路가 트이는대로/ 한 배 가득 花環을 싣고 너를 찾으며.

- 『과딸카날島』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던 “과딸카날島”는 “살과 쇠가, 神話가 科學이/ 맞드리를 하든 곳”으로 일제의 폭력으로 수많은

(sensibilité), ‘감각(sensa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의지는 힘의 감성으로 표명된다. 그런 점에서 ‘분노’는 복수의 ‘원한감정’이 될 수 있다.(질 들뢰즈, 이경신 역,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15, 85-123쪽.)

소수 민족의 생명이 수탈당했던 장소였다. 그 많은 소수 민족들을 죽였지만 연합군에 의해 “남방 永劫의 흠이된 『神兵』 怨恨의 敗戰地”를 상상하며 시인은 일제의 만행에 대한 정당한 복수에 대한 쾌감과 동시에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소수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시로 형상화한다. 더욱이 이 시의 화자는 “우리도 이제 南方航路가 트이는데/ 한 배 가득 花環을 싣고 너를 찾으마”라며 그들의 원한을 달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딸카날島”에 가서 조의를 표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는 바로 “南方航路”가 막혀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南方航路”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가로막힌 3·8선이라는 제국주의적 코드의 경계와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제국주의적인 코드와 경계를 넘어 제국주의의 폭력과 침탈의 역사를 공유하는 소수 민족과 연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김동명은 해방 직후 일제의 제국주의 신화를 해체하고, 일제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침탈당했던 소수 민족과 연대하여 전 인류가 평등한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꿈을 꾀 시인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집 『珍珠灣』에 수록된 태평양 전쟁시편들은 단순한 사회참여적인 시들이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를 청산하고자하는 시인의 분열증적 욕망을 보여준다.

3. 소련과 북한 공산당 정권의 통치와 제국주의의 반복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김동명에게 민주주의적인 국민국가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낳았다. 식민 제국의 폐망이라는 카오스(Chaos)는 시

29) 분열증적 과정은 우리를 욕망적 생산으로부터 떼어 놓는 벽이나 극한을 뛰어넘고, 욕망의 흐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597-598쪽.)

인에게 도래할 민주 국가라는 카오스모스(Chaosmos)적인 욕망을 낳기 때문이다.³⁰⁾ 그래서 김동명도 일제의 패망 뒤 “드디어 문혀져 가는 카오스 속”에서 “새 歷史의 탄생”(『새나라의 幻想』)을 희망하고 환상(幻想)했다.³¹⁾ 그가 꿈꾼 새나라는 “四千年의 歷史를 깨뚫어 흐르는 『民族魂』 위에 터”를 잡고, “불 같이 뜨겁고 샘 같이 淨한 『同胞愛』의 가룩한 마음씨로/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獨立 自主』의 굵고 둥글고 미끈한 大理石 기둥”을 세우고, “世界史의 指向이요 新生活의 原理인 『民主主義』의 확장석”으로 “빈 틈 없이 벽”을 쌓아야 했다. 이렇게 볼 때 김동명이 희망한 새 나라를 민족혼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여 자주적 독립으로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다. 즉 “地球가 구르는 동안 썩을 리는 없는 『人類愛』의 대들뽀”(『새나라의 構圖』)를 세운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남과 북은 김동명의 바람과 달리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의해 분단되고 말았다. 김동명은 신탁통치가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임을 여실히 알고 이에 반대했다. 그래서 신탁통치는 “三國 外相의 모처럼한 厚意”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國際奴隸의 지월”(『託治·2』)에 안기는 일이며, 이 일의 사단은 “主權만은 里民族”에

30)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카오스(chaos)’로부터 ‘환경’과 ‘리듬’이 태어난다. 성분적 요소의 주기적 반복에 의해 환경이 생겨나고, 환경들은 상호 이동과 소통을 반복한다. 하지만 환경은 카오스에 열려 있으며, 이 카오스는 환경을 소진시키거나 침입하려고 위협한다. 그러나 환경은 리듬으로 반격한다. 카오스와 리듬의 공통점은 ‘둘-사이’, 즉 두 가지 환경 사이에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로부터 ‘카오스-리듬’ 혹은 ‘카오스모스(Chaosmos)’가 나온다. ‘카오스모스’는 그래서 리듬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자, ‘도래할 민중’들의 공간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근대를 더 이상 카오스의 힘들에 맞서지 않는 ‘코스모스(cosmos)적인 시대’로 규정하고, ‘카오스모스’적인 공간을 구성할 민중과 시인의 창안을 주장하고 있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2』, 새물결, 2001, 589-667쪽.)

31) 해방 전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반발해 교직을 내던지고 목상(木商)일을 하던 김동명은 해방 직후 시민 유지들의 추대로 흥남시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1946년에는 조선민주당 함경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김동명, 앞의 글, 204쪽.)

게 주더라도 일제와 같은 “統監府”를 만들어 스스로 봉건적인 식민 군주의 신하가 되고자 했던 “李侯爵 각하”와 같은 친일파들의 후예들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설파한다. 그래서 그는 친탁파들에 대해 “老兄”은 “어느새 이렇게 많은 後裔를 가지”(『託治·1』)셨냐고 조롱한다. 이처럼 김동명은 해방 후 소련에 동조해 신탁통치에 대해 찬성한 이들의 행위가 친일파들이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반민족적 역사의 반복임을 시로써 고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가 점령한 북한 지역 역시 김동명이 희망한 민주주의 국가가 도래하기보다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통치가 반복되고 있었다. 즉 소비에트 치하 북한의 근대화는 “아침이 오면 휘날리는 붉은 旗 아래/ 바들바들 떠는 太極旗의 아아 눈물겨운 동반이어”(『輸送機 날으는 港市の 풍경』)라는 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에트라는 제국이 중심이 된 근대화였고, 우리 민족은 제국에 종속된 위치에서 근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게다가 소비에트 주도의 근대화는 “앞 바다엔 새로 드러운 輸送船이 여덟 척/ 어마어마한 巨體가 눈에 가시 일제/ 오늘도 배가 축 처지게 실은 輸送機는/ 북으로”(『輸送機 날으는 港市の 풍경』)나 르는 광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북한의 자원을 제국주의적으로 수탈하는 통치였다.³²⁾ 이와 같은 소련의 통치는 공산주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수탈을 통한 새로운 식민지화의 시도와 다를 바 없

32) 김동명은 소련의 북한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탈 실상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보다도 더욱 못견딜 노릇은, 參聯軍이 進駐하자, 곧 뒤이어 運送船團이 달려드는데-五, 六天級의 大型運送船이 매일 평균, 五, 六척, 혹은 七, 八척씩 뺨줄날개 드나들며, 物資를 실어나르는 광경이었다. 허두 엄청나게 실어나르기에, 아마 北韓 物資는 모두 興南港을 통하여 가져 가나보다 했는데, 웬걸, 뒤에 알고 보니 元山은 오히려 더 했고, 淸津, 羅津도 마찬가지로 하네, 놀랄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기를 四五年 八月下旬頃부터, 내가 越南하든 四七年 四月 上旬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속하는 것이었는데, 뒤에 越南한 故鄉人들에게 물으니, 그 뒤에도 물론 여전했다는 것이었다.”(김동명, 앞의 글, 207쪽.)

었다. 자본주의는 제국 중심부의 프롤레타리아와 관련해 제국의 주변부 프롤레타리아를 크게 착취하는 방식으로 높은 잉여가치율을 확보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³³⁾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김동명은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또한 정의로운 전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피난민들의 현실을 통해 고발한다.

보통이는 목에 걸고/ 老弱은 업고 지고……/ 지친 몸이 멧기슭에 쓸
어지니/ 찬 이슬에 저는 것은 옷자락만이 아니리// 城川江 방축에는/
때 아닌 밤의 가마귀 떼/ 어린이의 죽음 앞엔/ 좃볼 한 토막 없구나//
東本願寺 부처님도 加護를 잊으셨나/ 靑樓만 여기고 달려드는 밤 손을
맞아 찌어지는듯한 아낙네의 悲鳴도/ 못 듣는체 돌아 누어 이를 갈며//
아아 어제스날의 豪華를 追憶하는/ 歷史에 버림 받은 敗殘한 民族이어/
나는 이밤 밤 노래의 三重奏에/ 三十六年 忿怒를 잇는다.

- 「避難民·1」에서

소련에 의해 패망한 북한 지역 일본인 피난민들의 탈출은 비극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통이는 목에 걸고” “老弱”자들은 업고 길을 떠나지만 기숙할 곳도 없어 “지친 몸이 멧기슭에 쓸어”져 자다보면 “때 아닌 밤의 가마귀 떼”가 전하는 “어린이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³⁴⁾ 그리고 “千名 드리 土窟들은/ 주으린 짐승 처럼/ 아구리를 벌리고……// 리야까를 탄 작자(屍體)들은/ 대리로/ 길

33)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93-395쪽.

34) 김동명은 일본 피난민들에 대한 소련군의 만행을 보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내 눈 앞에 맨 먼저 나타난,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은, 北滿 혹은 咸北等地로부터 밀려나오는 日本避難民의 行列이었다. 그것은 실로 地獄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처참한 모습들이었다. 저들이 國道를 버리고 海岸線을 밟아, 興南으로 들어오는 것은, 倭聯軍을 피하기 위해서라는데, 여기서도 저들은 빈 창고나 遊廓이나 祠院 등에 억류되어, 밤마다 倭聯軍人에 依한 약탈과 겁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짓궂은 運命의 작란이었으랴. 머리를 박박 깎은 女人들이, 가끔 눈에떠어 더욱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김동명, 앞의 글, 205쪽.)

바닥을 쓸며”(『避難民·3』) 가는 끔찍한 광경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군도 일본의 파시즘적 군대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소련군에 의한 북한 지역의 통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아니라 인민의 죽음을 동반하는 ‘반(反)-생산’을 통해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잔혹한 파시즘적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³⁵⁾ 이렇듯 근대 국가에서 전쟁은 ‘예외상태’를 만들지만, 해방 직후 소련군의 주둔은 북한 지역에 식민지 전쟁의 상태와 같은 카오스적인 상황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한편 전쟁 직후 피난길의 카오스적 상황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위계가 더욱 강화되어, 여성이라는 존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 더욱 비참했다. 일본 피난민 여성들은 피난길에서 “秋波의 集中射擊”(『避難民·2』)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소련군들에 의해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즉 전쟁 후 소련군들은 피난하는 일본 여성들을 창녀들이 사는 집인 “靑樓”처럼 여기고 성적인 폭행을 자행한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밤 손을 맞아찢어지는 아낙네의 悲鳴”이 들리는 날 그 소리를 “못 듣는체 돌아 누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의 상황을 폭로한다. 이처럼 시의 화자는 일본 피난민 여성들의 상황을 “歴史에 버림 받은 敗殘한 民族”이라며 일본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통탄해하는 인류애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해방 후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된 북한 지역은 민주적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김동명은 공산주의 자체를 “人類가 가진 아름다운 浪漫的 하나”(『共產主義』)일 뿐

35)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정치-군사-경제 복합체들을 통해 주변부에서, 또는 중심부의 전유된 지대들에서 인간적 잉여가치를 추출함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99쪽.)

36) ‘예외 상태’는 독일의 법률전통에서 헌법과 법치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프랑스 및 영국 전통에서는 공위(攻圍, siege)상태의 개념이나 비상권력의 관념과 유사하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 외 역, 앞의 책, 32쪽.)

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근대 이후 민주적인 국가는 ‘법치국(Rechtsstaat)³⁷⁾이라는 규정에 기반한다. 그리고 ‘법을 규정하는 구조적 폭력’을 민주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에트 하의 제국주의는 “進駐軍의 威勢”로 북한 지역을 “法마저 行方不明”(『獄中記·1』)된 비민주적인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이 지방에 있어서 自由는 완전히 禁制品의 하나”(『自由』)라고 할 만큼 인민의 자유가 제약되었다. 김동명은 이를 “主人없는 손이길래 더욱/ 무시 무시해지는 밤”(『獄中記·1』)이라 언술함으로써 소련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북한의 현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주객이 전도된 카오스적인 식민지 상황으로 간주한다.³⁸⁾ 또한 북한 지역은 사회·경제면에서도 “偽造紙幣/ 偽造紙幣의 汎濫/ 이것은 바로 解放朝鮮의 罌粟”(『偽造紙幣』)일 만큼 혼란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공산주의에서 영웅이라 일컫는 “北方의 히로인”인 노동자들의 대우는 전쟁 준비로 인해 “무슨 黨比 무슨 負擔金 무슨 税金”해서 “控除額”(『勞動者』)으로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는 신민들에게 ‘무한 부채’를 강요하던 부패한 식민지 전제 군주 국가의 역사가 북한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³⁹⁾ 이처럼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은 민주주의적인 새 국가 건설이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제국의 지원

37) 들뢰즈와 가타리는 ‘투쟁, 전쟁, 범죄, 경찰’ 등의 ‘폭력 체제’를 구별하고 있는데, ‘법치국(Rechtsstaat)’은 ‘법을 규정하는 구조적 폭력’ 즉 법을 전투적인 폭력이 아니라 ‘경찰적’ 폭력으로 규정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860쪽.)

38) 김동명은 소비에트의 수탈로 인한 식량난으로 공산당 정권에 대항해 쌀을 달라고 시위를 벌인 1946년 함흥학생 의거사건에 연루되어 며칠간 공산 정권 치하의 교화소(敎化所)에서 소련군의 취조를 받았고, 교화소 안에서의 체험 때문에 소련의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굴라크(GULAG)에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밝히고 있다.(김동명, 앞의 글, 222쪽.)

3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63쪽. 김동명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계획과 명령대로 진행된 교화소의 설치, 농지 개혁, 신탁 통치 찬성 운동, 태평양노동조합사건 등의 노동자 탄압, 토지 혁명 등이 일제시대의 확장이자 일제시대보다 더 후퇴한 봉건제도(封建制度)와 같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했다.(김동명, 앞의 글, 213-227쪽.)

을 받은 조선공산당에 의한 전쟁 준비로 법이 사라진 ‘예외상태’의 형국이였다.

김동명은 이를 김일성 정권과 공산당이 자주적으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식민지 피지배자들처럼 “『스탈린』의 이익과 탐욕에 봉사하기 위한 한낱 기계”⁴⁰⁾와 같이 소비에트 정권에 복종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김동명 시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일성은 인민을 해방하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제국의 군주나 전체주의 지도자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정권 장악에만 몰두해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金將軍께 드릴 詩屏風을 실꼬/ 새로운 指令을 받으러 中央連席會議에
 나아가는 熱誠者들을 실꼬, 秘密장사패의 보따리를 실꼬/ 누렇게 뜯은 얼
 굴들을 실꼬/ 숨쉬는 『미이라』를 실꼬/ 결상도 없이/ 우리의 解放列車
 는/ 우리의 民主서울 平壤을 향해/ 오늘 아츰 威興을 떠났다
 - 『旅行記· I-汽車』중에서

전체주의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전제 군주처럼 자신을 ‘초월론적 기표 (le signifiant)’로 내세우며 통치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장의 욕망은 지도자의 욕망에 종속된다.⁴¹⁾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북한 지역 주변부 “威興”에서 중심부인 “民主서울 平壤”을 떠나는 “解放열차”는 “중앙연석회의(中央連席會議)”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동원된 인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그래서 김동명은 “解放列車”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詩屏風”이나 “새로운 指令을 받으러 中央連席會議에 나아가는 熱誠者들”을 신고 간다고 언술한다. 이와 같은 정치 현실은 ‘자유로운 대의(freie Repräsentation)’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가 지도자의 의지와 분리되지

40) 김동명, 앞의 글, 214쪽.

41)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47-353쪽.

않은 민주주의의 부패한 형태인 ‘전유된 대의’ 혹은 ‘구속된 대의 (gebundene Repräsentation)’의 정치 상황이다.⁴²⁾ 그런데 김일성이 인민들로부터 이상화되고 있는 현실은 부패한 전제 군주제나 일제 식민지 현실의 반복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⁴³⁾ 게다가 “咸興”과 같은 북한 지역에서 출발한 “熱誠者”들은 들뜬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렇게 뜬 얼굴”, “『미이라』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연술은 북한 주민들이 소련의 제국주의적 수탈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아울러 “『미이라』와 같은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은 ‘살아 있는 죽은 자’인 ‘좀비(zombie)’와 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연상케 한다.⁴⁴⁾ 이는 인간의 ‘산 노동(Living Labour)’을 찬양하던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괴리가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해방 후 북한은 일제시대처럼 파시즘적 자본주의적 반(反)-생산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 지역의 사회적 ‘결핍’은 ‘생산력들로 복귀해서 생산력들을 전유하는 반생산의 심급’인 파시즘적 자본주의에 의해 ‘역-생산’⁴⁵⁾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김동명에게 김일성은 인민해방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42) 대의(representation)는 근대 민주주의의 위대한 혁신 중 하나이다. 막스 베버는 대의자들과 피대의자 사이의 분리 정도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들-도용된 대의, 자유로운 대의, 구속된 대의-로 구분한다. 그중 ‘자유로운 대의(freie Repräsentation)’가 민주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전유된 대의(gebundene Repräsentation)’는 대의자들과 피대의자들 사이가 가장 약하게 연결되고 가장 강하게 분리된 형식이고, 이 유형에서는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구속된 대의(gebundene Repräsentation)’는 더 강한 연결을 창출하고 피대의자들의 지시에 대의자들이 항상 복종하도록 구속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대의자들의 자율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 역, 앞의 책, 326-329쪽.)

43) 김동명의 아들 김병우 교수는 8·15 이후 인간 김동명이 온 몸으로 부딪쳐 싸워간 상대는 법을 무시하고 제도를 유린하게 하는 우리나라에 깊이 박혀 있는 ‘왕조시대의 의식구조’라는 민주주의의 적이었다고 지적했다.(김병우, 앞의 글, 256쪽.)

4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818쪽.

4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63쪽.

아니라 “우리의 金將軍은/ 市廳 正門 배란다에서/ 스탈린대원수를 모시고/ 오늘도 비를 맞”(『街頭點景·3』, 『비맞은 畫像』)고 있는 ‘위성국가의 군대를 이끄는 용병대장’⁴⁶⁾에 불과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식민주의적 역사를 주도하고 반복한 이들은 바로 조선공산당과 그 휘하의 관료들이라 할 수 있는 공산당원들이었다.

여기에, 『李舜臣』을 가리킨 죄로 교단에서 추방을 당한 젊은 교원이 있다./ 愛國歌를 부르다가 반동자의 烙印을 받은 늙은 교장이 있다./ 천 조대신으로부터/ 스탈린 대원수의게로/ 아아 네 이름은/ 世紀의 코스모 폴이턴!/ 헌신짝 같이/ 아하 진실로 헌 신짝 같이/ 祖國을 버리는 무리 들어/ 너희들의 등 뒤에서 惡魔는 웃는다

- 『惡魔는 웃는다』 중에서

둘연히, 日本刀를 찬 두사람의 保安隊員이 운동장을 횡단하여 校長席 앞으로 武步를 옮긴다./ 교장은 起立하여 정중히 좌석을 권한다. 그러나 우리 保安隊員동무는 손을 뒤으로돌려 鞞문에서 捕繩을 끄낸다./ 滿場은 愕然한다./ 女生徒들은 우름을 터트린다./ <중략> 『동무 여러분, 교장은 아직도 日帝主義의 殘滓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요, 우선 施賞席을 보시오, 저게 앉은 사람들은 모두 過去 日帝時代에 소위 有力者라던 사람들 뿐이고, 勞動者나 農民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소. 이런 낡아 빠진 머리를 가진 교장은 단호히 처단하지 않으며 안될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러 동무 앞에서 교장을 逮捕하게 된 이유요……』

- 『運動會』 중에서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는 사해동포주의인 “코스모폴이턴”이라는 이념을

46) 오늘날 모든 군대는 ‘용병군대’가 되어가는 경향에 놓여있다. 르네상스 말기 ‘무장된 민중’은 ‘용병군대’로써 ‘용병’은 ‘용병대장의 지도’를 받게 된다. 용병대장들은 ‘테크놀로지 분야, 질서수호대대, 위성국가의 군대를 이끄는 용병대장’이 각각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서 끔찍한 대량학살이 수행되었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 외 역, 앞의 책, 80쪽.)

강조했다. 사해동포주의는 모든 인류의 평등을 열망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민족주의와 같은 소수 민족의 사상이나 이념을 배제한 억압 정치체제였다. 그래서 소비에트는 학교와 같은 훈육 기관에서 “李舜臣”과 같은 민족 영웅을 가르치는 교원이나 “愛國歌”를 부르는 “늙은 교장”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했다.⁴⁷⁾ 이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황국신민화 정책과 유사한 현실의 반복이다. 그래서 해방 후 북한은 “天祖大臣으로부터/ 스탈린 大元首”에게로 방향만 바뀐 제국주의적 통제사회와 다를 바 없었다. 김동명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을 “헌 신작 같이/ 祖國을 버리는 무리들”이라고 비난하며, “너희들의 등 뒤에서 惡魔는 웃는다”라며 그들을 비판한다.

한편 해방 경축 교내 운동회에서의 사건을 다룬 『運動會』라는 시에서는 북한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保安隊員동무”들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산주의는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농민들과 같은 프롤레타리아들의 해방을 투쟁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공산주의자들은 “施賞席”에 앉은 사람들이 “모도 過去 日帝時代에 소위 有力者라던 사람들”뿐이고, “勞動者나 農民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교장”을 “日帝主義의 殘滓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체포한다. 그러나 정작 “保安隊員” 자신들은 조선 시대나 일제 때 경찰이 사용하던 “捕繩”과 “日本刀”를 들고 “교장”을 체포하여 “滿場”을 “愕然”하게 하고 있다. 이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하던 공산주의의 이상적 현실이 아니라, 위계와 불평등이 강조되었던 야만적인 식민지 전제 군주 국가와 같은 현실의 반복이다. 이처럼 야만적 전제 군주 국가는 전제 군주의 수행원들인 관료들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면서 신민들을 통치한다.⁴⁸⁾ 이렇듯 김동명은 해방 후

47) 김동명은 1946년 흥남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함경남도 교육 기관이 “民族主義적 良心派의 獨舞臺”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김동명, 앞의 글, 212쪽.)

4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361-362쪽.

북한 지역에서 일제시대와 같은 신식민주의적 공포 체계의 현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음을 시로써 고발하고 있다.

4. 민중의 예속 집단화와 피난민들의 탈출

소련과 북한 정권의 치하에서 김동명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제국주의적인 현실은 이동의 자유를 막는 한계선인 ‘3·8선’이었다. 3·8선은 소비에트와 미국이 신탁통치를 하기 위한 기능적 구분의 선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인민들을 가로막는 이동과 자유의 경계, 이념적 자유의 경계가 되었다. 김동명에게 이 3·8선은 북한에서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감옥과도 같은 제국주의적인 경계선이었다.

獄門/ 굳게 닫힌 獄門이다.// 一千萬의 獄因諸君, 경계하라 惡役을,
그리고 盜難을/ 諸君의 주위는 자못 不潔하고도 騷亂하다/ 자, 저 사내
들은 무슨 이야기가 저리도 장황하담/ 남은 불붙는 鄉愁에 까맣게 입술
이 타는데……// 예잇 주먹으로 우리들의 이 주먹으로/ 그만 와지끈 지
끈 따러 부실수는 없다.

- 「三八線」 중에서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김동명에게 “三八線”은 감옥처럼 “굳게 닫힌 獄門”이었다. 해방 후 북한 “一千萬”의 민족은 죄수처럼 “三八線”이라는 감옥에 갇힌 “獄因諸君”과도 같았다. 그리고 삼팔선의 주위는 “자못 不潔하고도 騷亂”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불붙는 鄉愁” 때문에 “장황”한 “이야기”나 하지 말고, “우리들”의 “주먹”으로 삼팔선을 깨부수자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주먹”이란 민중들의 의식화된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전체주의적 지배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의식화된 투쟁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은 해방 후

북한 지역의 인민들처럼 제국주의적인 낡은 권력의 형식에 의해 종속된 ‘예속 집단(assujetti-groupe)’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회적 종합을 추구하는 리비도의 투자들 자체가 혁명적인 집단인 ‘주체 집단(sujet-groupe)’⁴⁹⁾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노랑 대구리를 안고/ 法廷에 끌려온 새댁이 있다./ 자궁이 찢기어
저/ 한 밤중에 병원 문을 두들려 본 아낙네들로서도/ 어림 못할 悲劇이
다./ 判官은 뉘쟁이처럼 추궁 추궁히 달래 보겠만/ 젊운이는 『反逆者』
도 모섭지 않다는듯이 끝내 굽히지 않는다./ 무서운 悲劇이다./ 나는 여
기에서 문득 戰慄을 느낀다./ 우리의 政府도 만일 저렇게/ 노랑대구리가
된다면……?

- 『憂鬱한 光景』에서

잉어를 뜻하는 “노랑 대구리”는 전통적으로 해산한 여성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누어 주던 음식이다. 그런데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부족으로 “새댁”이 “젊운이”로부터 그것을 훔쳐 “法廷”에 끌려온 것이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이 상황을 “자궁이 찢기어저/ 한 밤중에 병원 문을 두들려 본 아낙네들로서”도 “어림 못할 悲劇”으로 언술한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법정의 “判官”도 법이라는 정의(正義)보다는 인정(人情)에 호소해 보지만, “젊운이”는 모든 생산물을 공유하는 이상을 지닌 공산주의 체제의 “反逆者”가 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인의 처벌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무서운 悲劇” 속에는 해산을 한 후 “노랑 대구리”를 먹어야 한다는 낡은 봉건적 믿음을 지닌 “새댁”과 자신의 사유재

49) 전(前)의식적 수준에서의 혁명적 집단은, 권능(權能) 자체에 자신을 예속시키고, 욕망적 생산을 으깨기를 계속하는 권력 형식과 관련되는 한에서는 ‘예속 집단(assujetti-groupe)’인 채로 머문다. 이와 반대로 ‘주체 집단(sujet-groupe)’은 그 리비도의 투자들 자체가 혁명적인 집단이다. 이 집단은 예속의 상징적 규정들에 맞서, 위계도 집단 초자아도 없는 횡단성의 현실적 계수들을 대립시킨다. 사람들은 이 두 유형의 집단으로 끊임없이 이행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575-579쪽.)

산인 “노랑 대구리”를 흠쳐 간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권력에 종속되어 인정이 없는 “짧은이”, 그리고 제도적 정의보다는 “뛰쟁이”처럼 둘 사이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하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判官”이라는 ‘예속 집단’에 속한 인물 군상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예속 집단’은 낡은 권력 형식에 종속되어 있기에 혁명적인 욕망을 생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화자는 “문득 戰慄”을 느낀다. 이 ‘전율(戰慄)’은 공동체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른 ‘불안’이라 할 수 있다. ‘불안(anguish)’은 ‘동료로부터 고립된 개인’이 ‘위험이 편재하며 예측할 수 없으며 항구적’인 ‘공동체의 외부’에 놓였을 때 드러난다.⁵⁰⁾ 그렇기 때문에 시의 화자는 자신이 해방 후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의해 ‘예속 집단’화 되어가는 공동체의 외부에 놓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마치 예언자와 같은 타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政府도 만일 저렇게/노랑대구리가 된다면……?”하는 정치적이고 분열증적인 ‘망상(妄想, Le délire)’도 하게 된다.⁵¹⁾ 따라서 이 망상의 내용은 해방 후 북한이 “노랑 대구리”처럼 봉건적 사상에 여전히 예속된 집단, 소비에트 자본주의 권력에 종속된 집단,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식민화된 ‘예속 집단’의 소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언과 같은 분열증적 망상이다.⁵²⁾

50) 싸울로 비르노, 김상운 역, 『다중-현대 삶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갈무리, 2004, 52-54쪽.

51) 정신분석에서 망상(delusion)은 주로 편집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흔히 알려진 기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지만 주체에게 확고하게 고정되고 수정되지 않는 허위신념들이다.(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앞의 책, 119쪽 참고.) 그런데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열증과 편집증의 증상이 확고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느낀다’라는 차원의 느낌은 환각 현상(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에 대상들을 주고 망상 현상(나는……라고 생각한다)들에 내용을 준다. 그리고 모든 망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라고 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48쪽, 164쪽.)

52) 예언자의 분열증적이고 편집증적인 망상은 ‘정념적이고 권위주의적 관계’에서

이와 같은 소비에트의 제국주의적 통치와 김일성의 전체주의적 통치하의 공포는 조선민주당 함남도위원장까지 지낸 김동명을 비롯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제 시기의 피난민들과 같은 카오스적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초래했다.⁵³⁾ 근대 이후 억압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는 언제나 삶의 희망과 자유가 있는 열린 공간을 찾아 떠나는 피난민들의 ‘탈출(Exodus)’⁵⁴⁾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욕망의 도주선을 따라가고, 벽을 뚫고 흐름을 통과시키는 도주는 혁명적인 일이기도 하다.⁵⁵⁾ 그러나 너무나 가혹했던 소련과 김일성 전체주의적 정권에서의 피난길은 일제 시기와 같은 카오스적 상황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북한 지역 피난민들의 탈출은 먹거리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다.

女인은 엮었던 아이를 내려 무릎에 앉히고 밥수가락을 든다. 문득 눈물이 비 방울처럼 수가락 든 손등에 떨어진다. 드디어 목이 메여먹지 못하는구나……./『-애 아버지도 풀뿌리 캐러 단이다가 病이 들어 굶어 돌아오고 애 우호로도 두 아이도……』 눈물로 말을 맺지 못한다.//『원洞里가 다 그랬어요. 이웃마을에서는 하로에 여덟명씩 나간 때도 있었다 든데요. 이왕 죽을 바엔, 하고 애를 돌려 없고 계바라 나왔지요…….』// 이洞里는 역이 고대라, 밤마다 南行車에 실려오는 哀話의 실꾸러미는

나온다. 예언자는 ‘현재와 과거의 권력들을 적용하기보다는 미래의 역량들을 앞서가서 탐지’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241쪽.)

53) 이미립은 김동명 산문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식을 지적하면서 “피난, 전쟁, 목숨을 건 탈출 위기엔 인간에 대한 배신, 생명경시, 냉정함과 극단적 이기주의가 난무할 수밖에 없기에 실망감과 극한 상황의 비정함과 냉엄함을 체험”하게 한다고 했다.(이미립, 『김동명 산문에 나타난 타자지향성과 디아스포라의식』, 김동명학회편, 『김동명문학연구1』, 2015, 132쪽.)

54) 네그리와 하트에 의하면 내전이나 계급투쟁과 같은 근대성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새로운 운동들은 폐쇄된 공간 어디에서나, 운동들은 억압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한 욕망 및 희망을 지닌 채 유목주의와 탈출Exodus로 돌아섰다고 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앞의 책, 120쪽 참고.)

5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464쪽.

이층마다 해 돋을 무렵이면 온 마을에 풀린다.

- 「南行車에서 나린 女人」에서

소련의 수탈로 인한 북한 지역의 식량난은 북한 주민을 아사(餓死) 상태로 내몰았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른 “南行車에서 나린 女人”과 같은 여성들은 자식의 양육과 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는데, 아수라장이 된 역에서 “女人은 엮었던 아이를 나려 무릎에 앉히고 밥수까락”들면서 하는 생생한 증언은 피난 여성의 이중적 억압과 해방 후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고스란히 전해 주고 있다. 식량 부족으로 화자의 남편은 “풀뿌리를 캐러 단이다 病이 들어 굶어 돌아가”고, 자식 중 “두 아이”도 굶어 죽어갔다. 그리고 “이웃마을”에서도 “하루에 여덟명씩 나간 때”가 있을 정도로 식량 부족의 아사 상태는 죽음이 만연한 카오스 상태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여인은 “이왕 죽을바에는” 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건 피난의 “南行車”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제군!/ 面目이 없네/ 미안하이/ 다못冥福을 빌뿐”(「早 餓死者」)이라며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처럼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제국이 남과 북을 나누어 통치하게 된 현실은 김동명이 기대했던 민주주의를 성취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반복되는 새로운 식민주의적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국주의적인 통치의 강화는 그가 목숨을 걸고 3·8선이라는 제국주의적 경계를 탈출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⁵⁶⁾ 이처럼 북한에서 소련에 의한 식민주의적인 통치의 경험과 6.25 전쟁은 김동명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문학을 통한 민족해방의 상상

56) 1946년 12월 중순 경 김동명은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부주석의 자리에까지 오른 조선민주당 당수(黨首) 최용건에 의해 공산당과의 불화를 이유로 출당(黜黨) 조치를 당했고, 공산당원들과 보안대원들의 감시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다가 1947년 가족들마저 북한에 두고 단신으로 목숨을 걸고 월남하였다.(김동명, 앞의 글, 256-257쪽.)

력을 더욱 확장시키기 어려운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김동명은 시작(詩作) 활동 내내 일제 식민화의 경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해방 후 소비에트 전체주의 사회라는 억압적 현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적 현실의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김동명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중심부와 주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엄격히 구분된 위계적 질서와 경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정신을 갖게 하였다.

김동명은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을 전후로 참혹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눈뜨게 된다. 중일전쟁은 일제가 제국주의를 넘어서 파시즘화되는 경향을 보여준 전쟁이었다. 해방 직후 간행된 『三八線』, 『하늘』, 『眞珠灣』 등의 시집에서 김동명은 탈식민화된 현실 속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독립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런 그의 열망이 이들 시집에 치열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중일전쟁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저질렀던 수많은 파시즘적 제국주의의 신화를 해체하고 일제의 만행을 시로 폭로했다. 더 나아가 김동명은 그의 시를 통해 일제에 의해 수탈과 침략을 당한 소수 민족들과의 연대를 주창하는 분열증적인 사유와 욕망을 시화했다. 김동명은 일제의 부패한 역사의 청산과 다양한 소수 민족들 간의 연대야말로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해방 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이 신탁통치 되자 분단된 현실을 목도하고 이것을 시로 형상화했다. 특히 김동명은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일제 시기와 같은 신식민주의적 통치가 반

복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시로 풍자하고 조롱했다. 김동명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의 관료들과 김일성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위해 인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게다가 그는 김일성과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의 관료들이 일제의 역사를 칭찬하지 못하고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형태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하지만 해방 후 김동명이 북한 지역에서 절감한 가장 큰 한계는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던 경계인 '3·8선'이었다. 3·8선은 남과 북이라는 지리를 막는 경계일 뿐만 아니라 이념과 이동, 신념 등을 가로막는 한계선이었다. 김동명은 이 3·8선을 민중들의 의식화된 투쟁을 통해 해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방 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치하의 민중들이 봉건적이고 낡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적 권력에 의해 종속되어 식민화된 예속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자각하고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한다. 이와 같이 해방 후 3·8선이라는 제국주의적 경계는 북한에서 김동명이 문학을 통해 민족 해방의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된 한계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김동명, 『三八線』, 문류사, 1947.
_____, 『하늘』, 문류사, 1948.
_____, 『眞珠灣』,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54.
_____, 『金東鳴 詩全集』, 강릉시 발간, 2017.
_____, 金東鳴文集刊行會, 『모래 위에 쓴 落書』, 1965.

2. 참고 논저

- 김동명학회 편, 『김동명문학연구』, 제1호-제6호, 2014-2019.
김병우, 「아버지 金東鳴에 관한 書翰」, 『金東鳴의 詩世界와 삶』, 대전:한남대학교 출판부, 1994, 201-273쪽.
김윤정, 「김동명의 정치평론집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사상 고찰」, 김동명문학회 편, 『김동명문학연구 3』, 김동명학회, 2016, 121-145쪽.
_____, 「일제말기 김동명의 전쟁시를 통해 본 현실 인식과 저항성」, 김동명문학회 편, 『김동명문학연구 4』, 김동명학회, 2017, 67-92쪽.
남기택, 「경계 너머의 지정학-김동명 시의 경우」, 김동명학회 편, 『김동명문학연구 6』, 김동명학회, 2019, 147-171쪽.
심은섭, 「‘상실’과 ‘저항의식」, 김동명 시세계」, 『인문사회21』, 제10권 6호, 2019, 653-663쪽.
엄창섭, 『金東鳴 연구』, 서울:학문사, 1987.
이미림, 「김동명 산문에 나타난 타자지향성과 디아스포라의식」, 김동명학회편, 『김동명문학연구 1』, 김동명학회, 2015, 111-146쪽.
임영환, 「金東鳴의 民族詩의 성격」, 『金東鳴의 詩世界와 삶』, 대전:한남

- 대학교 출판부, 1994, 177-194쪽.
- 장은영, 「金東鳴 詩에 나타난 場所의 詩的 形象化」, 『語文研究』 39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83-409쪽.
- _____, 「초허(超虛) 김동명 시에 나타난 장소의 형상화」, 『김동명문학연구 5』, 김동명학회, 2018, 41-72쪽.
- 최주한, 「신체제기 이광수 황민화론의 세 계기」, 『서강인문논총 50』, 2017, 327-356쪽.
-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역, 서울:도서출판 b, 2016.
- _____, 『제국의 구조-중심, 주변, 아주변』, 조영일 역, 서울:도서출판 b, 2016.
- 털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역, 서울:현실문화연구, 2000.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영 역, 서울:세종서적, 2008.
- _____, 『제국』, 윤수종 역, 이학사, 2016.
-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이경신 역, 서울:민음사, 2015.
- _____,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서울:민음사, 2009.
- _____,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생성과 창조와 철학사』, 박정태 역, 서울:이학사, 2010.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안티 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서울:민음사, 2016.
- _____,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2』, 김재인 역, 서울:새물결, 2001.
- _____, 『카프카-소수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역, 서울:동문선, 2004.
- 빠울로 비르노, 『다중-현대 삶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김상운 역, 서울:갈무리, 2004.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역, 서울:소명출판, 2012.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Post-colonialism and Schizophrenic Thoughts in Kim Dong-myeong's Poem

Kook, Won-Ho* · Choi, Do-Sik**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thoughts of postcolonialism and schizophrenia in the poems of Kim Dong-myeong. And this study made an attempt of schizoanalysis of schizophrenia. Throughout activity to write poems, Kim Dong-myeong experienced the repressive reality of Japanese colonialism and Soviet totalitarian society. However, the real experience of totalitarianism and imperialism distinguished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the ruler and the dominant. And hierarchical order and boundaries were deconstructed. This is Kim Dong-myeong's poetic spirit. In particular, Kim Dong-myeong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ms such as *The三八線(38 Line)*, *하늘(Heaven)*, and *珍珠灣(Pearl Harbor)*, which were published after liberation. This collection of poetry tried to escape post-colonialism and Japanese imperialism. So he was eager to create a new democratic and independent state. So he dismantled the myth of Japanese fascist imperialism. And he exposed the brutality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imperialism exploited and invaded minorities. His poems contemplated schizophrenia, seeking solidarit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th ethnic minorities. And he desires it.

However, after liberation, Kim Dong-myeong sees neo-colonialism like Japanese imperialism rather than communism in North Korea. Neo-colonial and totalitarian rule were repeated in North Korea. He satirizes and ridiculed it as a poem.

The reality of the '38 Lines' is a geographical boundary that blocks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boundary is the limiting line that blocks ideology, movement, and belief. Kim Dong-myeong tried to dismantle the '38 Lines' as people's conscious struggle. In Soviet socialist rule after liberation, people were subordinated to feudal, old imperial, and totalitarian powers. It is a subordinate group. Kim Dong-myeong crosses the '38 Line' and escapes to South Korea. Therefore, the '38th line' after liberation is the boundary of imperialism. This boundary is the limit of Kim Dong-myeong's imagination of national liberation through literature in North Korea.

Key Words: Kim Dong-myeong, Schizophrenia, Post-colonialism, Totalitarianism, Escape

■ 논문접수 : 2021년 3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4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